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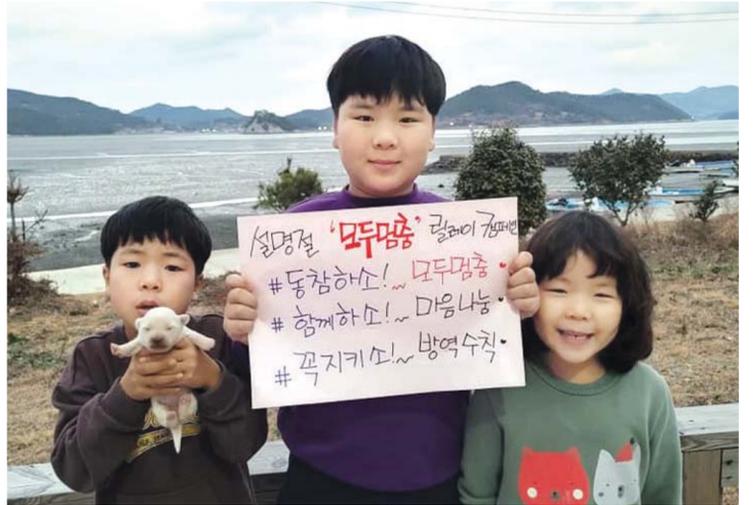
“할머니·할아버지, 코로나 끝나면 꼭 만나요”

완도 세 남매, 고향 방문 자제 ‘모두 멈춤’ 운동 동참 SNS·온라인으로 안부 전하고 영상통화로 세배하고 담양 ‘제주 양씨’ 증가 “차레는 4명만...세배는 화상”

“다음엔 꼭 갈게요. 할머니·할아버지, 세배 복 많이 받으세요.” 설을 앞두고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대신, 온라인상으로 안부를 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명절 대이동’을 자제하는 정부 권고를 따르면서 고향을 가지 못해 아쉽고 부모·친척을 보지 못해 섭섭한 마음을 인터넷과 SNS 상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완도군 노화도에서 살고 있는 신은진(43)씨는 이번 설 명절, 광주에 있는 시부모님 댁 방문을 포기했다. 시집 온 10년 동안 한 번도 명절 때 시댁을 가지 않은 적이 없었던 만큼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데다, 설 명절 이동을 자제하라는 지자체의 권고 등도 무

시할 수 없었다. 신씨는 “올해는 언제 가요?”라고 매일같이 묻는 조유승(11)·유찬(9)·유빈(여·7) 등 세 자녀를 설득하는데도, 애타게 먹었다. 신씨의 세 자녀는 이런 아쉬움을 SNS에 올렸다. SNS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두 멈춤’ 운동에 동참, “얼른 코로나19가 안정돼 못했던 가족들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멈춤”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신씨 가족들은 설 당일에는 한복을 입고 영상통화로 부모님들에게 세배를 올리기로 했다. 인터넷과 SNS에는 설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대신, 사진과 글로 안부를 전하는 ‘모두 멈춤’ 릴레이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지난 추석 때도 못 갔는데 올해 설까지 찾아볼지 못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자녀들을 헤아려 먼저 나서는 어르신들도 있다.

명절이면 찾는 친·인척들만 수십 명에 달하는 종가가 대표적이다. 담양 소재원에 터를 둔 ‘제주 양씨’ 종가는 이번 설까지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자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매년 설이면 최소 22명이 참석하는 차례에 이번에는 4명만 참석해 치르기로 했다. 종손 양재혁씨는 “설 당일, 차례는 각자의 집에서 진행하고 줌(ZOOM·온라인화상도구)으로 친지들 간 세배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인터넷 뱅킹으로 세뱃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면서 “정성과 마음만은 더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이 고향인 정모(동구 지산동·50)씨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 때문이라도 자식들을 남겨놓고 부부만 고향을 다녀오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정씨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설에는 고향에 가지 않는 게 맞지만 부모님 건강을 고려하면 어쩔수 없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고향을 찾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완도군 노화도에서 살고 있는 조유승(11)·유찬(9)·유빈(여·7) 세 남매가 지난 3일 SNS에 설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모두 멈춤” 릴레이 운동에 동참한 사진을 올렸다. <신은진씨 제공>

판소리 배우며 고향 못가는 아쉬움 달래자

광주교육대, 8일 ‘남도 판소리 및 민요 공동 강좌’ 생중계

광주교육대학교가 설을 맞아 오는 8일 풍향문화관 하정웅 아트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남도 판소리 및 민요 공동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중 ‘2020 찾아가는 박물관 강좌’ 사업으로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광주교대,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4개 박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적벽가 이수자인 국악인 김민영씨를 초청해 ‘남도 남도인, 남도문화’ 주제강연과 ‘판소리 장단 및 고수의 역할’ 등 이론강연을 하고 춘향가 중 사랑가와 진도아리랑을 시연하는 실기강연이 준비돼 있다. 이번 강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터넷(<http://gmue.kr>)에 접속 후 유튜브(채널명 ‘광

주교대 교육문화원’)와 줌(zoom)을 링크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최도성 광주교육대 총장은 “코로나로 인해 설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 남도 판소리의 구성전 가락을 배우면서 우리 국악의 멋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지역문화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북구, 한국판 뉴딜 연계 ‘북구형 뉴딜’ 본격 추진

46건 443억 규모

광주시 북구가 지역 발전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북구형 뉴딜 계획’을 제시했다. 4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판 뉴딜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북구형 뉴딜’ 계획을 구체화했다. 북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 중 지역 공모사업을 위한 보고회도 마쳤다. 보고회에서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수립하고, 24건을 대응 사업으로 정했다.

주요사업은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공공시설물 디지털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그린 뉴딜은 그린 브릿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노후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사업 ▲안전망 강화는 스마트 리빙랩 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 4차 산업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이다. 북구는 기존에 추진중인 디지털 뉴딜 14건, 그린 뉴딜 3건, 안전망 강화 5건 등 22건을 포함해 총 46건 443억원(국·시비 포함) 규모의 ‘북구형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남대 ‘비교과활동 장학금’ 4억 설 이전 지급

재학생 4200명 혜택

호남대학교가 지난 한 해 동안 비교과활동에 참여한 재학생 4200여 명에게 활동실적에 따라 적립된 ‘비교과 7Star 프로그램’ 장학금 4억여원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키로 했다. 특히 이번 ‘비교과 프로그램 7Star 포인트’ 장학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에서도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잠재역량 개발과 자기계발에 열정을 쏟은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설 연휴 시작 전인 오는 9일까지 전액 학생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7Star 프로그램’은 호남대 인재상 구현에 필요한 인성, 자기관리, 대인관계, 글로벌 역량, 비전설계, 학습역량, 전문역량 등 7개 영역에 걸쳐 마련된 각종 외국어 성적 및 자격증, 사회봉사활동, 예술 공연 활동, 대회 수상 및 발명 특허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을 포인트로 전환, 1년간 획득한 포인트를 장학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학생들은 최소 5포인트부터 최대 500포인트(포인트당 850원)의 장학금을 지급받는데, 성취감과 자기 주도적 비교과활동 촉진에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정시자율 모집

이달말까지...등록금 80% 지원

동강대학교가 이달말까지 2021학년도 정시자율 모집을 한다. 스마트시티학부·ICT융합학부·간호학부·보건의료학부·국방안전학부·교육복지서비스학부·휴먼라이프학부 등 7개 학부 21개 학과 신입생을 추가 선발한다. 기계자동화과와 외식조리제빵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P테크(고숙련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참여한다. P테크 사업 참여 신입생은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동강대는 학과별 입학 장학금을 등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정시자율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학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교육청 대입지원관 본격 현장 지원

전남교육청이 현장 중심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지원관을 채용,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섰다. 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갑 교육감 공약사항인 진로맞춤 고교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대학 입학사정관 경력을 보유한 대입지원관 2명을 채용했다. 대입지원관은 지난 2019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권역에 설치한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진로진학 관련 교원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이들 대입지원관은 최근 순천고, 목포고를 찾

아가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도 교육청은 대입지원관을 통해 보다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 제공과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 현장중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학교와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진학 관련 교원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대입지원관을 통해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 제공과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편입생 추가모집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인문사회	신 학 과		○
	한국어교육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1. 2. 22(월) ~ 24(수)
- 전 형 일 : 2021. 2. 25(목) 오전 10시

▶ 입학문의 062)605-1114

학부 편입2차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정 원 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인문	한국어교육학과	○	-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	-
사범	유아교육과	-	-	○	-
예능	음악학부	○	-	-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1. 2. 2(화) ~ 5(금)
- 전 형 일 : 2021. 2. 9(화) 오후 2시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